

재외동포청장,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

-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(화)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* 고려인동포 :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 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또는 그 친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고려인동포법 제2조)

□ 김 청장은 “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”며, “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,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”라고 말했다.

□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‘고려인 역사 박물관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

○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, 내년(2027년)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, 올해 9~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,

○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, 개관,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.

-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“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,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”며,
 - “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.

붙임 : 접견 사진 5부. 끝.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| 책임자 | 과 장 이규현 (032-585-317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권오성 (032-585-3288) |

